



남부고시 나래국어 이유진 교수

2018 서울시 9급 국어(B영) 해설

현) 남부고시 공무원 국어 전임 교수
 서경대학교 공공인적자원학부 교수
 前) KG패스원 공무원 국어 전임 교수
 前) 메가스터디, 이투스청솔, 강남종로
 前) 동대부속고등학교 / 홍익대학교 /
 응지세무대학



집필) 이유진 나래국어 알기쉬운 문법, 박문각
 이유진 나래국어 우월한 독해, 박문각
 이유진 나래국어 저절로 어휘완자, 박문각
 이유진 나래국어 독해알고리즘, 헤르메스
 이유진 나래국어 문법의 단권화, 고시동네
 이유진 나래국어 기출300제, 박문각
 이유진 나래국어 예상300제, 박문각
 메가박스 EBS 분석노트
 디딤돌국어의 모든 것(단권화) 시리즈
 디딤돌EBS 변형 시리즈 (비문학)
 검토) EBS 수능특강 사전 검토, 자이스토리 검토
 기타) 법률저널 국문학과 국사의 입맛춤, 독해방법론, 학습심리 칼럼 연재

문 1. <보기>의 괄호에 알맞은 한자성어는?

<보기>
 일을 하다 보면 균형과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일의 수행 과정에서 부분적 잘못을 바로 잡으려다 정작 일 자체를 뒤엎어 버리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기 때문이다. 흔히 속담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부분적 결점을 바로잡으려다 본질을 해치는 ()의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 ① 개과불린(改過不吝)
- ② 경거망동(輕舉妄動)
- ③ 교각살우(矯角殺牛)
- ④ 부화뇌동(附和雷同)

★ 정답: ③ - 어휘 - 한자 - 성어

★ 정답 해설:

일을 하다 보면 균형과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면서, 부분적 결점을 바로 잡으려다 본질을 해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지문의 내용상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교각살우(矯角殺牛): 결점이니 흠을 고치려다 수단이 지나쳐 도리어 일을 그르침 - 矯 바로잡을 교 / 角 뿔 각 / 殺 죽일 살, 감할 살, 빼를 썰 / 牛 소 우

★ 오답 해설:

- ① 개과불린(改過不吝): 허물을 고침에 인색하지 않음을 이르는 말 - 改 고칠 개 / 過 지날 과, 제양 화 / 不 아닐 불, 아닐 부 / 吝 아낄 린(인)
- ② 경거망동(輕舉妄動): 도리나 사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경솔하게 행동함 - 輕 가벼울 경 / 舉 들 거 / 妄 망령될 망 / 動 움직일 동
- ④ 부화뇌동(附和雷同): 자신의 뚜렷한 소신 없이 그저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함 - 附 붙을 부 / 和 화할 화 / 雷 우레 뇌(뢰) / 同 한가지 동

문 2. <보기>의 단어에 공통으로 적용된 음운 변동은?

<보기>
 • 꽃내음[꽂내음]
 • 바깥일[바깥닐]
 • 학력[학녁]

- ① 중화
- ② 첨가
- ③ 비음화
- ④ 유음화

★ 정답: ③ - 이른 문법 - 음운론 - 음운의 변동

★ 정답 해설:

꽃내음 ⇨ [꽂내음] ⇨ [꽂내음]

‘꽃내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으로 [꽂내음]이 된 후 ‘내’의 ‘ㄴ’으로 인해 비음화(교체)가 일어나 [꽂내음]으로 발음된다.

바깥일 ⇨ [바깥일] ⇨ [바깥닐] ⇨ [바깥닐]

‘바깥일’은 우선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으로 인해 [바깥일]이 된다. 이후 ‘바깥-일’이 합성어이고 앞말인 ‘깥’이 자음으로 끝나며 뒷말인 ‘일’의 첫 음절이 ‘이’로 시작하므로 뒷말의 초성 자리에 ‘ㄴ’을 첨가한다. 마지막으로, 첨가된 ‘ㄴ’으로 인해 비음화(교체)가 일어나 [바깥닐]로 발음된다.

학력 ⇨ [학녁] ⇨ [학녁]

‘학력’은 “받침 ‘ㄷ, ㅇ’ 뒤에 연결되는 ‘ㄹ’은 [ㄴ]으로 발음된다.”는 표준 발음법 제19항 [붙임] 조항에 따라 [학녁]이 된 후 ‘녁’의 ‘ㄴ’으로 인해 비음화(교체)가 일어나 [학녁]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위의 세 단어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음운의 변동은 ‘비음화’이다.

참고) 음운의 변동 (알기 쉬운 문법 p. 39)



★ 오답 해설:

- ① ‘중화’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뜻한다. ‘꽃내음’과 ‘바깥일’에서는 중화가 일어났으나 ‘학력’에서는 중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 ② ‘첨가’ 중 ‘ㄴ’ 첨가가 ‘바깥일’에서만 일어났다.
- ④ ‘ㄴ’이 앞이나 뒤에 위치한 유음 ‘ㄹ’의 영향으로 발음이 ‘ㄹ’로 바뀌어서 소리 나는 현상을 유음화라고 한다. 세 단어 모두 유음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문 3. 밑줄 친 단어의 품사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의존명사>
 나도 그 사람만큼 할 수 있다. <조사>
- ② 오늘은 바람이 아니 분다. <부사>
아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감탄사>
- ③ 그 아이는 열을 배우면 백을 안다. <명사>
 열 사람이 백 말을 한다. <관형사>
- ④ 그는 이지적이다. <명사>
 그는 이지적 인간이다. <관형사>

★ 정답: ㉠ - 이론 문법 - 형태론 - 품사의 통용

★ 정답 해설:

뒤에 조사가 붙는 숫자는 체언 중 수사이다. 따라서 '그 아이는 열을 배우면 백을 안다.'에서 '백'은 뒤에 조사 '을'이 붙었으므로 수사이다.

뒤에 체언이 오는 숫자는 수식어 중 관형사이다. 따라서 '열 사람이 백 말을 한다.'에서 '백'은 뒤에 오는 체언 '말'을 수식하므로 관형사이다.

참고 품사의 통용(通用) 中 (알기 쉬운 문법 p. 113)

① 의존 명사와 조사의 통용: '만큼, 뿐, 대로'

·용언의 관형사형 다음에 오는 '만큼, 뿐, 대로'는 의존 명사

예 원하는 대로 해라.

·체언 다음에 오는 '만큼, 뿐, 대로'는 조사

예 법대로 해라.

② 수사와 관형사의 통용: 숫자

·뒤에 조사가 붙는 숫자는 수사 (수사 = 체언)

예 나무가 다섯이다.

·뒤에 체언이 붙는 숫자는 관형사 (수 관형사 = 수식어)

예 나무를 다섯 그루 심었다.

③ 부사와 감탄사의 통용: '아니'

·'아니' 뒤에 용언이 붙으면 이때의 '아니'는 부사

예 안(=아니) 아파.

·'아니'가 독립적으로 쓰이면, 이때의 '아니'는 감탄사

예 "잠 자니?" "아니, 안 자."

④ 접미사 '-적'의 통용

·뒤에 조사가 붙는 '-적'은 명사를 만든다.

예 그는 인간적이다. / 사회적인 책임

·뒤에 체언이 붙는 '-적'은 관형사를 만든다.

예 인간적 행위 / 사회적 책임

·뒤에 부사가 붙는 '-적'은 부사를 만든다.

예 비교적 쉽다. / 비교적 빨리

★ 오답 해설:

① '만큼'은 의존 명사와 조사로 통용되는 단어이다. 용언의 관형사형 다음에 오는 '만큼'은 의존 명사이고, 체언 다음에 오는 '만큼'은 조사이다.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에서 용언인 동사의 관형사형인 '참을' 뒤에 '참을'의 수식을 받으므로 이때의 '만큼'은 의존 명사이다.

'나도 그 사람만큼 할 수 있다.'에서는 체언인 '그 사람'에 붙어 쓰이므로 이때의 '만큼'은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② '아니'는 부사와 감탄사로 통용되는 단어이다. '아니' 뒤에 용언이 붙으면 이때의 '아니'는 부사이고, '아니'가 독립적으로 쓰이면 이때의 '아니'는 감탄사이다.

'오늘은 바람이 아니 분다.'에서는 '아니'가 용언인 동사 '분다' 앞에서 '분다'를 수식하므로 이때의 '아니'는 부사이다.

'아니, 이럴 수가 있던 말인가?'에서는 '아니'가 놀라거나 감탄스러울 때, 또는 의아스러울 때 하는 말로 독립적으로 쓰이고 있으므로 이때의 '아니'는 감탄사이다.

④ 접미사 '-적'은 명사, 관형사, 부사를 만든다. 접미사 '-적'이 붙은 말 뒤에 조사가 붙으면 명사이고, 접미사 '-적'이 붙은 말이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면 관형사, 뒤에 오는 용언이나 부사를 수식하면 부사이다.

'그는 이지적이다.'에서는 접미사 '-적'이 붙은 '이지적' 뒤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었으므로 명사이다.

'그는 이지적 인간이다.'에서는 접미사 '-적'이 붙은 '이지적'이 뒤에 오는 체언인 '인간'을 수식하므로 관형사이다.

문 4. 1960년대 한국 문학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후 문학의 한계에 대한 극복이 주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 ② 4·19혁명의 영향으로 현실비판문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 ③ 참여문학과 순수문학 진영 간의 논쟁이 발생하였다.
- ④ 민족문학과 민중문학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 정답: ㉠ - 독해 - 문학 - 지식국어

★ 정답 해설:

1970년대 민족문학론은 시민문학이 중심이 되며 이후 민중문학으로 전환된다. 시민문학을 소시민적 민족문학론이라고 비판하고, 1980년대 민중 세력의 전면대두에 부응하여 새로운 생산대중에 근거한 새로운 민족문학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된다. 이것이 민중문학론이다.

민중문학은 1980년대 한국문학의 한 흐름을 이끌어갔다. 민중이 직접 창작하고, 민중의 민주주의적이고 휴머니즘적인 지향을 담은 리얼리즘 문학이다. 민족문학과 민중문학을 이끌어간 문학단체는 '자유실천문인협의회'와 이를 확대 개편한 '민중문학작가회의'이다.

★ 오답 해설:

① 1950년의 전후 폐해가 어느 정도 복귀되고, 생존 그 자체의 문제가 극복되자, 그 뒤로는 '먹느냐 굶느냐'하는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당시 정치적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자라기 시작하였다. 이는 전후 문학의 한계를 극복해 나간 과정이라 볼 수 있다.

② 4.19혁명은 시민에 의한 것으로 자유와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상징한다. 1960년대에는 정치 현실과 사회 상황에 적극 대응하는 현실참여문학(현실비판문학)이 전개되었다. 김수영, 신동엽 등이 '참여시 운동'을 펼친 대표적 작가이다.

③ 1960년대는 문학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꽃을 피운 시기이기도 하다. 이념 대 강성, 체형 대 언어, 참여 대 순수, 시민의식 대 소시민의식, 교훈 대 유희, 내용 대 기교 등 시민적 리얼리즘 대 내성적 기교로 맞서 논쟁이 진행되었다.

문 5. <보기>에서 밑줄 친 부분의 발음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손 자: 할아버지. 여기 있는 ㉠ 밭을 우리가 다 매야 해요?
할아버지: 응. 이 ㉡ 밭만 매면 돼.
손 자: 이 ㉢ 밭 모두요?
할아버지: 왜? ㉣ 밭이 너무 넓으니?

- ① ㉠: [바슬]
- ② ㉡: [반만]
- ③ ㉢: [반]
- ④ ㉣: [바치]

★ 정답: ㉠ - 어문규정 - 표준 발음법 - 받침의 발음

★ 정답 해설:

홀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는 연음이 일어난다. '밭을'은 홀받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한 경우이므로 연음하여 [바틀]로 발음해야 한다.

★ 오답 해설:

② '밭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에 의해 [반만]이 된 후 비음화(교체)가 일어나 [반만]으로 발음한다.

③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에 의하면 음절의 끝소리 자리인 종성(받침)에서 모든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중 하나로 발음된다. 음절 끝소리가 'ㄷ'인 경우에는 [ㄷ]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밭'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으로 인해 [반]으로 발음한다.

④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ㅑ, ㅕ, ㅛ, ㅠ'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그 'ㄷ, ㅌ'이 구개음 [ㅈ, ㅊ]이 되는 현상을 구개음화라 한다. '밭이'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바치]로 발음한다.

문 6. 표준어끼리 묶인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물, 남사스럽다, 씹쌩하다, 복숭아뼈
- ② 까탈스럽다, 걸판지다, 주책이다, 걸울음
- ③ 찰지다, 잎새, 꼬리연, 푸르르다
- ④ 개발새발, 이쁘다, 덩쿨, 마실

★ 정답: ④ - 어문규정 - 표준어 규정

★ 정답 해설: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표준어 규정 제26항에 따라 ‘넉쿨’과 ‘덩쿨’은 복수 표준어이지만, ‘넉쿨’은 비표준어이다.
 ‘개발새발’은 2011년에 ‘괴발개발’과 함께 복수 표준어로 새로 인정되었다. ‘이쁘다’는 2015년에 ‘예쁘다’의 복수 표준어로 인정되었으며 ‘마실’은 ‘이웃에 놀러 다니는 일’의 의미에 한하여 ‘마을’의 복수 표준어로 2015년에 인정되었다.

참고) 2011년 새로 인정한 복수 표준어(알기 쉬운 문법 p. 236)

간절이다/간지럽하다	남사스럽다/남우세스럽다	등물/목물	땀날/안날
못자리/뚝자리	복숭아뼈/복사뼈	세간살이/세간	쌩쌩하다/쌩쌩래하다
토란대/고운대	허겁쓰레기/허실스레기	흙담/토담	-길래/-기에
개발새발/괴발개발	나래/날개	내음/냄새	눈꼬리/눈소리
떨구다/떨어뜨리다	뜨락/뜰	먹거리/먹을거리	메꾸다/메우다
손주/손자	어리숙하다/어수룩하다	연신/연방	횡하니/횡허게
질리적거리다 / 거지적거리다	고적거리다/끼적거리다	두리뭉실하다/두루뭉술하다	땀송땀송/땀송땀송
바동바동/바동바동	새초롬하다/새치름하다	아웅다웅/아웅다웅	야멸차다/야멸치다
오손도손/오순도순	찌뿌둥하다/찌뿌듯하다	추근거리다/치근거리다	-
자장면/짜장면	태권/택견	폼세/폼새	-

참고) 2015년 새로 인정한 복수 표준어(알기 쉬운 문법 p. 237)

추가된 표준어	기존 표준어	비고(뜻 차이)
마실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웃에 놀러 다니는 일’의 의미에 한하여 표준어로 인정한다. ‘어려 집이 모여 사는 곳’의 의미로 쓰인 ‘마실’은 비표준어이다. ‘마실꾼, 마실방, 마실들이, 밤마실’도 표준어로 인정한다. 예 나는 방문을 열고 이모네 마실 갔다 오라고 말했다.
이쁘다	예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쁘장스럽다, 이쁘장스레, 이쁘장하다, 이쁘디이쁘다’도 표준어로 인정한다. 예 어이구, 내 새끼 이쁘기도 하지.
찰지다	차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에서 <‘차지다’의 원말>로 풀이한다. 예 화단의 찰진 흙에 꽃잎이 화사하게 떨어져 날리곤 했다.
-고프다	-고 싶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에서 <‘-고 싶다’가 줄어든 말>로 풀이한다. 예 그 아이는 엄마가 보고파 앙앙 울었다.

★ 오답 해설:
 ① ‘등물, 남사스럽다, 씹쌩하다, 복숭아뼈’는 모두 2011년에 추가된 복수 표준어이다.
 ② ‘까탈스럽다’는 ‘까다롭다’의 복수 표준어로, ‘걸판지다’는 ‘거방지다’의 복수 표준어로, ‘주책이다’는 ‘주책없다’의 복수 표준어로, ‘걸울음’은 ‘견울음’의 복수 표준어로 2016년에 추가되었다.
 ③ ‘찰지다’는 ‘차지다’의, ‘잎새’는 ‘잎사귀’의, ‘꼬리연’은 ‘가오리연’의, ‘푸르르다’는 ‘푸르다’의 복수 표준어로 2015년에 추가되었다.

문 7. 문장쓰기 어법이 가장 옳은 것은?

- ① 한국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하여 일본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 ②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경영 혁신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 ③ 이것은 아직도 한국 사회가 무사안일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 ④ 냉정하게 전력을 평가해 봐도 한국이 자력으로 16강 티켓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 정답: ① - 이론 문법 - 통사론 - 올바른 문장

★ 정답 해설:
 ‘항의하다’는 목적어와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이때 목적어 대신 ‘...에 대하여’가 쓰이기도 한다.
 ‘한국 정부는’ 주어이고,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하여’가 목적어 대신 쓰였으며, ‘일본에’가 필수 부사어로 쓰였다. 이때 ‘일본’은 무정 명사이므로 부사격 조사 ‘에’를 쓰는 것이 옳다. 사람, 동물과 같은 유정 명사 뒤에는 부사격 조사 ‘에게’를 쓴다.

참고) 올바른 문장 10. 조사와 단어의 호응 중 (알기 쉬운 문법 p. 297)
 (6) 재해 지역 선포를 대통령에 요청했다. (⇒ 대통령에게)
 고무러사 왜곡에 대해 중국 정부에게 항의하였다. (⇒ 중국 정부에)
[해설] ‘에게’는 사람, 동물과 같은 유정 명사에, ‘에’는 무정 명사에 쓰인다.

★ 오답 해설:
 ② ⇒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영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요구되어지다’는 ‘요구되+어지다’의 구성으로, 불필요한 이중피동형이 쓰인 형태이다. 또한 ‘요구되다’는 ‘...에/에게 요구되다’의 형태로 쓰인다. 따라서 불필요한 피동형을 능동형으로 고치고 적절한 부사어를 넣어 ‘~ 경영 혁신이 ...에/에게 요구된다.’로 쓰는 것이 옳다.
 또, 접속 조사 ‘와’ 앞의 ‘경쟁력 강화’와 구의 양식을 맞추어 ‘생산성 향상’이라고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③ ⇒ 아직도 한국 사회가 무사안일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문장이다. ‘생각이’가 주어, ‘든다’가 서술어, ‘아직도 한국 사회가 무사안일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이라는 문장은 관형절로 ‘생각’을 수식하는 구조로 고치고 불필요한 문장 성분인 ‘이것은’은 빼도 문장의 의미가 성립한다. 또한 ‘벗어나다’는 ‘...에서 벗어나다’ 혹은 ‘...을 벗어나다’와 같이 쓰이므로 ‘무사안일주의를 벗어나지’로 쓰는 것은 옳은 표현이다.
 ④ ⇒ 냉정하게 전력을 평가해 봐도 한국이 자력으로 16강 티켓을 획득할 가능성은 높은 편이 아니다.
 ⇒ 냉정하게 전력을 평가해 봐도 한국이 자력으로 16강 티켓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
 제시된 문장은 가정이나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아도’를 고려하여 의도에 따라 두 가지로 고칠 수 있다. 냉정하게 전력을 평가해 보아도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조사 ‘은’이 아닌 주격 조사 ‘이’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반대로 회의적인 결과가 예상된다면 ‘가능성은 높은 편이 아니다’라고, 보조사 ‘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 ‘16강 티켓 가능성’이 아니라 ‘16강 티켓을 획득할 가능성’과 같이 명사인 ‘가능성’을 수식해주는 관형절로 쓰는 것이 옳다.

문 8. 6·25전쟁과 가장 거리가 먼 소설은?

- ① 손창섭, 『비오는 날』 ② 박경리, 『토지』
- ③ 장용학, 『요한시집』 ④ 박완서, 『엄마의 말씀』

★ 정답: ② - 독해 - 문학 - 지식국어

★ 정답 해설:
 박경리의 <토지>는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한 가문의 몰락과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경남 하동군 평사리와 용정, 그리고 진주와 서울 등을 배경으로 그려내고 있다. 지난 시절 우리 민족이 겪은 힘든 삶을 생생하게 그려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인간의 보편성에 대한 탐구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만석꾼인 최치수가 죽임을 당하자 외동딸인 최서희는 먼 친척뻘인 조준구 일당의 계약으로 재산을 모두 빼앗기게 되고 내쫓긴다. 서희는 일본의 감시를 피해 간도의 용정으로 야반도주를 하게 되고, 그곳에서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재기하여 다시 예전 땅과 집을 사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

★ 오답 해설:
 ① 손창섭의 <비오는 날>은 6·25 전쟁 직후 부산을 배경으로, 압박한 시대를 사는 불구적인 인간들의 무기력하고 우울한 삶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피난민들이 모여 살았던 부산에 줄곧 비가 내리는 음울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동쪽 동쪽 남매의 삶을 바라보는 원구의 시선이 그려져 있다.
 ③ 장용학의 <요한시집>은 6.25 전후 포로 수용소를 배경으로 쓴 실존주의적 경향의 소설로, 전쟁 포로인 누해가 철조망에 목을 매고 자살하기까지의 삶의 과정을 다루고 있다.
 ④ 박완서의 단편 연작이다. 그 중 <엄마의 말씀 2>는 6.25 전쟁과 오빠의 죽음을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은 엄마의 삶을 단순히 한 개인의 사적인 역사에 머무르게 그리기보다는, 가족사(家族史)-민족사(民族史)의 차원으로 고양시켜 보여주고 있다.

문 9. '권력의 무상함'을 나타내는 속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달도 차면 기운다.
- ② 열흘 붉은 꽃이 없다.
- ③ 물도 가다 구비를 친다.
- ④ 꽃이 시들면 오던 나비도 안 온다.

★ 정답: ③ - 어휘 - 속담

★ 정답 해설:
 물도 가다 구비를 친다: 사람의 한평생에는 전환기가 있기 마련이라는 말.
★ 오답 해설:
 ① 달도 차면 기운다:
 「1」 세상의 온갖 것이 한번 번성하면 다시 쇠하기 마련이라는 말.
 ≒ 그릇도 차면 넘친다·달이 둥글면 이지러지고 그릇이 차면 넘친다 「1」·차면 넘친다[기운다] 「2」.
 「2」 행운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은 아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달이 둥글면 이지러지고 그릇이 차면 넘친다 「2」.
 ② 열흘 붉은 꽃이 없다 = 봄꽃도 한때 「1」.
 봄꽃도 한때:
 「1」 부귀영화란 일시적인 것이어서 그 한때가 지나면 그만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열흘 붉은 꽃이 없다.
 「2」 「북」 청춘은 누구에게나 한때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봄도 한철 꽃도 한철.
 ④ 꽃이 시들면 오던 나비도 안 온다 = 꽃이라도 십일홍(十日紅)이 되면 오던 봉접도 아니 온다
 꽃이라도 십일홍(十日紅)이 되면 오던 봉접도 아니 온다: 사람이 세도가 좋을 때는 늘 찾아오다가 그 처지가 보잘것없게 되면 찾아오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길던 물이라도 알아지면 오던 고기도 아니 온다 「2」·꽃이 시들면 오던 나비도 안 온다·나무라도 고목이 되면 오던 새도 아니 온다.

문 10.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내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어린이들은 원래 북아메리카에는 100만 명가량의 인디언밖에 없었다고 배웠다. 이렇게 적은 수라면 거의 빈 대륙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백인들의 정복을 정당화하는 데 유용했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발굴과 미국의 해안 지방을 처음 밟은 유럽인 탐험가들의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인디언들이 처음에는 약 2000만 명에 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세계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콜럼버스가 도착한 이후 한두 세기에 걸쳐 인디언의 인구는 최대 95%가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디언들이 죽은 주된 요인은 구세계의 병원균이었다. 인디언들은 그런 질병에 노출된 적이 없었으므로 면역성이나 유전적인 저항력이 전혀 없었다. 살인적인 질병의 1위 자리를 놓고 다투었던 것은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발진티푸스 등이었고,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듯 디프테리아, 말라리아, 볼거리, 백일해, 페스트, 결핵, 황열병 등이 그 뒤를 바짝 따랐다. 병원균이 보인 파괴력을 백인들이 직접 목격한 경우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1837년 대평원에서 가장 정교한 문화를 가지고 있던 만단족 인디언들은 세인트루이스에서 미주리 강을 타고 거슬러 올라온 한 척의 증기선 때문에 천연두에 걸렸다. 만단족의 한 마을은 몇 주 사이에 인구 2000명에서 40명으로 곤두박질쳤다.

-체레드 다이아몬드, 「총·균·쇠」 중에서

- ① 유럽은 신세계였고, 아메리카는 구세계였다.
- ② 인디언들은 구세계의 병원균에 대한 면역성이 없었다.
- ③ 만단족 인디언들의 인구 감소는 백인들의 무기 때문이었다.
- ④ 콜럼버스 이전에 북아메리카에는 100만 명가량의 인디언이 있었다.

★ 정답: ② - 독해 - 비문학 - 내용 확인 긍정발문

★ 정답 해설:
 둘째 문단의 첫 문장과 둘째 문장을 통해, 인디언들은 구세계의 질병에 노출된 적이 없어 면역성이나 유전적 저항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해설:
 ① 인디언들이 죽은 주된 요인으로 '구세계의 병원균'을 꼽고 있다. 이 병원균은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를 정복하려 오며 들여온 것이므로, '구세계'는 유럽을, '신세계'는 아메리카를 말할 수 있다.
 ③ 만단족 인디언들의 인구 감소는 백인들의 무기 사용 때문이 아니라, '세인트루이스에서 미주리 강을 타고 거슬러 온 증기선'에서 전달된 천연두 병원균에 의한 것이다.
 ④ 필자는 어릴 때에 '북아메리카에는 100만 명가량의 인디언밖에 없었다.'고 배웠지만, 이후 유럽인 탐험가들의 기록이 상세히 연구되며 '인디언들이 처음에는 약 2000만 명에 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문 11. '본용언 + 보조 용언' 구성이 아닌 것은?

- ① 영수는 쓰레기를 주워서 버렸다.
- ② 모르는 사람이 나를 아는 척한다.
- ③ 요리 맛이 어떤지 일단 먹어는 본다.
- ④ 우리는 공부를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알아 간다.

★ 정답: ① - 이문 문법 - 형태론 - 본용언과 보조 용언
★ 정답 해설:
 ‘영수는 쓰레기를 주웠다.’, ‘영수는 쓰레기를 버렸다.’와 같이 두 개의 용언이 모두 문장에서 단독 서술어로 쓰일 수 있고 ‘주워서 버렸다’와 같이 두 용언 사이에 ‘-어서’가 들어가도 문장이 성립한다. 따라서 ‘주워서 버렸다’는 ‘죽다’와 ‘버리다’의 의미가 각각 독립적으로 쓰이고 있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결합이다.
참고 용언의 종류(알기 쉬운 문법 p. 104-105)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구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본용언은 문장에서 단독으로 서술어로 쓰일 수 있지만, 보조 용언은 문장에서 단독으로 쓰일 수 없다. 보조 용언과 형태가 같더라도 본용언으로 쓰이면 의미와 기능이 달라진다.
 둘째, 본용언과 보조 용언 사이에는 ‘-아서/어서’나 다른 문장 성분이 들어갈 수 없다.
★ 오답 해설:
 ② ‘모르는 사람이 나를 아는 척한다’에서 ‘척하다’는 ‘모르는 사람이 나를 척한다’와 같이 단독으로 쓰일 수 없으며 ‘아는 척한다’ 사이에 ‘-아서/어서’나 다른 문장 성분이 들어갈 수 없으므로 ‘아는 척한다’는 본용언 ‘알다’와 보조 용언 ‘척하다’가 결합된 구성이다. 이때 ‘척하다’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서 ‘-은 척하다’, ‘-는 척하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거짓으로 그럴듯하게 꾸밈’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이다.
 ③ ‘요리 맛이 어떤지 일단 먹어 본다’에서 ‘보다’를 ‘요리 맛이 어떤지 일단 본다’와 같이 단독으로 쓰면 그 의미와 기능이 달라진다. 또한 ‘먹어 본다’ 사이에 ‘-아서/어서’나 다른 문장 성분이 들어갈 수 없으므로 ‘먹어 본다’는 본용언 ‘먹다’와 보조 용언 ‘보다’가 결합된 구성이다. 이때 ‘보다’는 ‘(동사 뒤에서 ‘-어 보다’ 구성으로 쓰여) 어떤 행동을 시험 삼아 함’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이다.
 ④ ‘우리는 공부를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알아 간다.’에서 ‘가다’는 ‘우리는 공부를 할수록 더 많은 것을 간다’와 같이 단독으로 쓰일 수 없으며 ‘알아 간다’ 사이에 ‘-아서/어서’나 다른 문장 성분이 들어갈 수 없으므로 ‘알아 간다’는 본용언 ‘알다’와 보조 용언 ‘가다’가 결합된 구성이다. 이때 ‘가다’는 ‘(주로 동사 뒤에서 ‘-어 가다’ 구성으로 쓰여) 말하는 이, 또는 말하는 이가 정하는 어떤 기준점에서 멀어지면서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가 계속 진행됨’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이다.

문 12.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화랑도(花郎道)란, 신라 때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마음과 몸을 닦고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려는 우리 고유의 정신적 흐름을 말한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화랑도(花郎徒)라 한다. 그 사회의 중심인물이 되기 위하여 마음과 몸을 단련하고, 올바른 사회생활의 규범을 익히며,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처할 때 싸움터에서 목숨을 바치려는 기풍은 고구려나 백제에도 있었지만, 특히 신라에서 가장 활발하였다.

- 변태섭, 「화랑도」 중에서

- ① 용어 정의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자신의 체험담을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반론을 위한 전제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통계적 사실이나 사례 제시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정답: ① - 독해 - 비문학 - 전개방식 긍정발문
★ 정답 해설:
 제시된 글은 ‘화랑도(花郎道)’와 ‘화랑도(花郎徒)’라는 용어들의 뜻의 정의를 제시하고, 과거 화랑도의 모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오답 해설:
 ② 과거 삼국시대 때 존재했던 단체인 ‘화랑도(花郎徒)’와 정신인 ‘화랑도(花郎道)’에 관한 글이므로, ‘자신의’ 체험담을 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제시된 글은 용어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나의 주장으로만 글을 전개하고 있으며, 반론에 해당되는 부분과 그 반론을 위한 전제는 찾아볼 수 없다.
 ④ 통계적인 사실 또는 사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문 13. <보기>의 시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가노라 ㉠ 三角山아 다시 보자 ㉡ 漢江水야
 ㉢ 故國山川을 써느고자 흐라마는
 時節이 하 ㉣ 殊常하니 울동 말동 흐여라

- 김상헌

- ① ㉠의 다른 명칭은 ‘인왕산’이다.
- ② ㉡은 여전한 사용하는 명칭이다.
- ③ ㉢의 당시 국호는 ‘조선’이다.
- ④ ㉣은 병자호란 직후의 상황을 뜻한다.

★ 정답: ① - 독해 - 문학 - 필수 작품에 대한 지식
★ 정답 해설:
 삼각산(三角山)은 인왕산이 아니라 북한산의 옛 이름이다. 임금이 있는 궁에서 가장 가까운 산이라고 하여 고전시가에 자주 등장한다.
 [작품해설]
 김상헌, <가노라 삼각산아>
 • 갈래: 평시조
 • 성격: 절의가, 우국가(憂國歌), 비분가(悲憤歌)
 • 특징: 상징적인 시어가 사용됨. 조국을 인격화하여 표현함.
 조국에 대한 애정과 비통한 심정이 표현됨.
 대구법을 사용하여 고국을 떠나는 불안감을 형상화함.
 대유법과 의인법을 사용하여 고국에 대한 애정을 표현함.
 도치법과 직설적인 표현영단법,
 의인법, 둔호법을 통해 착잡한 심정과 우국지정 표현.
 • 주제: 우국충절(憂國忠節). 적국에 잡혀 가는 우국지사의 비분강개/조국을 떠나야 하는 우국지사(愚國之士)의 비분강개(悲憤慷慨)한 심정/고국을 떠나는 신하의 안타까운 마음
 • 해제: 이 시조는 병자호란 때 예조 판서로 척화 항전을 주장했던 지은이가 패전 후 소현 세자, 봉림 대군 등과 함께 인질이 되어 청나라로 끌려갈 때 지은 것이다. 고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오랑캐 땅에 잡혀 가는 비장감, 귀국에 대한 불안 의식 등이 잘 드러나 있다. 초장의 ‘삼각산’과 ‘한강수’는 ‘왕도 현양, 고국, 임금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천만 마디 말보다도 간절하게 표현되어 있다. 임진왜란의 모진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다시금 병자호란을 만난 조선은 끝내 역부족으로 청나라에 항복하게 되었는데, 이때 그러한 어수선한 시국에 다시 조국 강산에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음을 의심하면서 청으로 끌려갔던 많은 절개 있는 선비들의 수난 당하는 모습을 미루어 볼 수 있는 작품이다.
★ 오답 해설:
 ② 漢江(한강)은 현재에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다.
 ③, ④ 이 시조는 병자호란 때 패전 직후 주전론자인 김상헌이 청나라에 끌려가는 치욕적 상황에서 지은 것으로 시대는 조선시대이다.

문 14. <보기>는 어떤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소설 속 지명은?

<보기>

그러나 나는 돌아서서 전보의 눈을 피하여 편지를 썼다. '갑자기 떠나게 되었습니다. 찾아가서 말로써 오늘 제가 먼저 가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만 대화란 항상 의외의 방향으로 나가 버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써 알리는 바입니다. 간단히 쓰겠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제 자신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어렵듯이 나만 사랑하고 있는 옛날의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옛날의 저를 오늘의 저로 끌어다 놓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하였듯이 당신을 햇볕 속으로 끌어 놓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할 작정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소식 드리면 당신은 ()을/를 떠나서 제게 와주십시오. 우리는 아마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쓰고 나서 다시 나는 그 편지를 읽어 봤다. 또 한번 읽어 봤다. 그리고 찢어 버렸다.

덜컹거리며 달리는 버스 속에 앉아서 나는 어디쯤에선가 길가에 세워진 하얀 팻말을 보았다. 거기에는 선명한 검은 글씨로 '당신은 ()읍을 떠나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써어 있었다. 나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 ① 삼포 ② 서울 ③ 거제 ④ 무진

★ 정답: ④ - 독해 - 문학 - 필수 작품에 대한 지식

★ 정답 해설:

<보기>는 소설 <무진기행>의 마지막 부분이다. 돈 많은 아내와 장인의 도움으로 며칠 뒤 임원 승진을 앞두고 있는 '나'는 서울을 떠나 무진으로 내려간다. 어린 시절 참담한 기억이 있는 무진에서, '나'는 음악 교사인 발랄한 처녀 하인숙을 만난다. '나'는 무진을 탈출하고 싶어 하는 하인숙에게서 '나'의 옛 모습을 발견하고 사랑을 느끼고 그녀를 서울로 데려가겠다고 말한다. 다음날 '나'는 상경을 요구하는 아내의 전보를 받고 갈등한다. 서울로 돌아가겠다고 작정한 후, '나'는 하인숙에게 사랑한다는 편지를 쓰고 이내 찢어버린다. 서울로 가며 부끄러움을 느끼는 '나'의 모습으로 소설은 마무리된다. <무진기행>은 선명하게 구분되는 두 개의 공간을 설정하고, 그 의미를 소설에 녹여내고 있다. 아내와 제약회사 임원 자리가 있는 서울은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가치의 공간이며, 이에 비해 무진은 동환적이고 탈속적인 탈일상의 공간이다. 소설은 이질적인 두 개의 공간 사이에서 내내 팽팽하게 고민하던 '나'가 무진을 떠나 서울로 향하며 마무리된다.

[작품해설]

김승옥, <무진기행>

• 주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현대인의 허무주의적 의식

• 구성

- 발단: '나'는 서울을 떠나 고향 '무진'으로 내려감.
- 전개: 술자리에서 하인숙을 만나 그녀에게 끌림.
- 위기: 하인숙에게 사랑을 느끼지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음.
- 절정: 아내의 전보를 받고 무진을 떠남.

• 해제: 이 소설은 1964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서울→(떠남)→무진(추억의 공간)→(복귀)→서울'의 회귀 구조를 이루고 있다. 한 인물의 귀향 체험을 통해 일상과 꿈이라는 대립적인 가치를 설정하여 일상을 벗어나고 싶은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바탕에 간 인간의 보편적 심성을 뛰어난 감수성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여기에서 '무진'은 권태와 무기력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자, 현실에서와는 달리 공상에 빠질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문 15. <보기>의 비판대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폴 맥카트니는 도축장의 벽이 유리로 되어 있다면 모든 사람이 채식주의자가 될 거라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가 식육 생산의 실상을 안다면 계속해서 동물을 먹을 수 없으리라고 그는 믿었다. 그러나 어느 수준에서는 우리도 진실을 알고 있다. 식육 생산이 깔끔하지도 유쾌하지도 않은 사업이라는 것을 안다. 다만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싶지 않다. 고기가 동물에게서 나오는 줄은 알지만 동물이 고기가 되기까지의 단계들에 대해서는 깊어보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동물을 먹으면서 그 행위가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조차 생각하려 들지 않는 수가 많다. 이처럼 우리가 어느 수준에서는 불편한 진실을 의식하지만 동시에 다른 수준에서는 의식을 못하는 일이 가능할 뿐 아니라 불가피하도록 조직되어 있는 게 바로 폭력적 이데올로기다.

- ① 채식주의자 ② 식육 생산의 실상
③ 동물을 먹는 행위 ④ 폭력적 이데올로기

★ 정답: ① - 독해 - 비문학 - 비판 추론

★ 정답 해설:

폴 맥카트니는 인간이 폭력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동물을 먹는 행위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동물이 고기가 되기까지의 폭력적인 과정들에 대해 인간들은 의식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실상을 모른 채 동물을 먹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채식주의자'는 육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므로 맥카트니에게는 비판 대상이 아닌, 추구해야 할 올바른 모습에 해당한다.

★ 오답 해설:

②, ③, ④ '동물을 먹는 행위'에 선행하는 '식육 생산의 실상'이 '폭력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가려져 어느 수준 이상으로는 의식을 못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들은 ①의 '채식주의자'와 대척점에 있는, 해당 글의 비판 대상으로 적절하다.

문 16. 나이와 한자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62세 - 화갑(華甲) ② 77세 - 희수(喜壽)
③ 88세 - 백수(白壽) ④ 99세 - 미수(米壽)

★ 정답: ② - 어휘 - 나이를 의미하는 한자어

★ 정답 해설:

희수⁰¹(喜壽): 나이 일흔일곱 살을 달리 이르는 말.

참고) 나이별 한자 호칭어(나래국어 저절로 어휘·한자 p. 281)

나이	호칭	나이	호칭
10세(안팍)	충년(沖年)	61세	환갑(還甲)
15세	지학(志學)		회갑(回甲)
16세	과년(瓜年)		환력(還曆)
20세(안팍)	방년(芳年)		화갑(華甲)
	모령(妙齡)	62세	진갑(進甲)
	약관(弱冠)	70세	고희(古稀)
30세	이립(而立)	77세	종심(從心)
40세	불혹(不惑)	80세	희수(喜壽)
48세	상년(桑年)	88세	산수(傘壽)
	상수(桑壽)	90세	미수(米壽)
50세	지천명(知天命)	99세	출수(卒壽)
	지명(知命)		동리(凍梨)
	애년(艾年)	100세	백수(白壽)
60세	이순(耳順)	기이저수(期頤之壽)	
	육순(六旬)		

★ 오답 해설:

- ① 화갑⁰³(華甲) = 환갑⁰²(還甲).
환갑⁰²(還甲): 육십갑자의 '갑(甲)'으로 되돌아온다는 뜻으로, **예수한 살**을 이르는 말. ≡ 주갑(周甲)·화갑⁰³(華甲)·환력⁰²(還曆)·회갑⁰²(回甲).
- ③ 백수⁰⁶(白壽): **아흔아홉 살**. '百'에서 '-1'을 빼면 99가 되고 '百' 자가 되는 데서 유래한다.
- ④ 미수⁰⁴(米壽): **여든여덟 살**을 달리 이르는 말.

문 17. 맞춤법 표기가 가장 옳은 것은?

- ① 이렇게 하면 되? ② 이번에는 꼭 합격할께요.
- ③ 서로 도우고 사는 게 좋다. ④ 그 사람은 제가 잘 압니다.

★ 정답: ④ -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 정답 해설:

'알다'는 어간 끝 받침 'ㄹ'이 어미의 첫소리 'ㄴ, ㅂ, ㅅ' 및 '-오, -어' 앞에서 줄어지는 경우, 준 대로 적는 'ㄹ' 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이다. 어간 '알-'에 종결 어미 '-ㅂ니다'가 오면 어간 끝 받침 'ㄹ'이 줄어 '압니다'로 적는다.

★ 오답 해설:

- ① '되다'의 어간 '되-'에 어미 '-어'를 써서 '되어'로 쓰거나 "모음 'ㅛ, ㅜ'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려 '과/거, ㅅ/았'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는 한글 맞춤법 제35항에 따라 '돼'와 같이 준말로 쓸 수 있다.
- ② 한글 맞춤법 제53항에 따라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어미들은 예사소리로 적는다. 그러므로 '하다'에 어미 '-ㄹ게'와 높임의 보조사 '요'를 붙이면 '할께요'라 적는 것이 아니라 '할게요'라 적는다.
- ③ '돕다'는 '도와-도와서-도와도-도왔다'와 같이 'ㅂ'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이다. 'ㅂ' 불규칙 활용은 어간 뒤에 모음 어미가 올 때 '오/우'로 바뀌는 활용이므로 어간 '돕-'에 모음 어미가 아닌 자음 어미 '-고'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돕고'라 적는다.

문 18.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다른 하나는?

- ① 그곳에서 갓은 고생을 다 겪었다.
- ② 우리가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 ③ 인천으로 갔다. 그리고 배를 탔다.
- ④ 아기가 방글방글 웃는다.

★ 정답: ① - 이문 문법 - 형태론 - 품사

★ 정답 해설:

'갓은'은 '골고루 다 갓춘, 또는 여러 가지의'를 뜻하는 관형사로써 명사인 '고생'을 수식하고 있다. 흔히 '가지고 있는'을 뜻하는 '가진'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으나 '가진'은 용언 '가지다'의 활용형이고, '갓은'은 그 자체로 하나의 관형사이다.

★ 오답 해설:

- ② '우리가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에서 '바로'는 '다름이 아니라 곧'을 뜻하는 부사이다.
- ③ '그리고'는 단어, 구, 절, 문장 따위를 병렬적으로 연결할 때 쓰는 접속 부사이다. 국어에는 영어의 'and, but, or'와 같은 접속사라는 품사가 따로 없고 접속 부사로 단어, 구, 절, 문장 등을 연결한다.
- ④ '방글방글'은 '입을 조금 벌리고 소리 없이 자꾸 귀엽고 보드랍게 웃는 모양'을 뜻하는 부사로써 동사인 '웃는다'를 수식하고 있다.

문 19. 띄어쓰기가 가장 옳은 것은?

- ① 창조적 독해가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활용될 수 밖에 없다.
- ② 사소한 오해로 철수가 나하고 사이가 멀어졌다.
- ③ 아는 체하는 걸 보니 공부 깨나 했다 보다.
- ④ 동해로 가는길에 평창에도 들렀다 가자.

★ 정답: ② -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 띄어쓰기

★ 정답 해설:

조사 '하고'와 동사 '하다'의 활용형인 '하고'를 구분해야 한다. '사소한 오해로 철수가 나하고 사이가 멀어졌다'에서 '하고'는 '상대로 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는 한글 맞춤법 제41항에 따라 앞말에 붙여서 쓴다.

★ 오답 해설:

- ① 보조사 '밖에'와 명사와 조사의 결합인 '밖에'를 구분해야 한다. '창조적 독해가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에서 '밖에'는 (주로 체언이나 명사형 어미 뒤에 붙어)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피할 수 없는'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활용될 수밖에'와 같이 앞말인 의존 명사 '수'와 붙여 적는다.

참고) 띄어쓰기에 주의해야 하는 조사 中 (알기 쉬운 문법 p. 162)

밖에	보조사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너 밖에 없다.
	명사+ 조사	집 밖에 나가 있어라.

- ③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거짓으로 그럴듯하게 꾸밈'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 '척하다'와 동의어인 '체하다' 역시 보조 동사이므로 본용언인 앞말 '아는'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의존 명사에 '-하다'가 붙어서 된 보조 용언이므로 '아는체하다'와 같이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다. '것을'의 준말인 '걸'과 어미의 일부인 '질'을 구분해야 한다. '아는 체하는 걸'은 '아는 체하는 것을'을 뜻하므로 띄어 쓴다. '깨나'는 어느 정도 이상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인 명사 '공부'와 붙여 '공부깨나'와 같이 적는다.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추측하거나 어렵듯이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보다'는 보조 형용사이므로 본용언인 앞말 '했나'와 띄어 쓴다.

참고) 어미와 형태가 같은 의존 명사 中 (알기 쉬운 문법 p. 163)

걸 거	의존 명사	후회할 걸 (= ~ㄹ 것을) 왜 그랬어. 난리가 났을 걸 (= 것이다).
	어미	
	일부	내가 먼저 사과할 걸 (아쉬움)

- ④ '김'은 ('-은/는 김에' 구성으로 쓰여) 어떤 일의 기회나 계기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가는 김에'와 같이 용언의 활용형인 앞말 '가는'과 띄어 쓴다.

문 20. <보기>에 나타난 작품 감상의 관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나는 지금도 이광수의 『무정』 작품을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껴. 특히 결말 부분에서 주인공 이형식이 “웁습니다. 우리가 해야지요! 우리가 공부하러 가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를 타고 가는 돈이며 가서 공부할 학비를 누가 주나요? 조선이 주는 것입니다. 왜? 가서 힘을 얻어 오라고, 지식을 얻어 오라고, 문명을 얻어 오라고 그리해서 새로운 문명 위에 튼튼한 생활의 기초를 세워 달라고 이러한 뜻이 아닙니까?”라고 부르짖는 부분에 가면 금방 내 가슴도 울렁거려 나도 모르게 “네, 네, 네”라고 대답하고 싶단 말이야. 이 작품은 이 소설이 나왔던 1910년대 독자들의 가슴만이 아니라 아직 강대국에 싸여 있는 21세기 우리 시대 독자들에게도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에 큰 감동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

- ① 반영론적 관점 ② 효용론적 관점
- ③ 표현론적 관점 ④ 객관론적 관점

★ 정답: ② - 독해 - 문학 - 문학의 감상 관점

★ 정답 해설:

외재적 접근 방법인 ‘효용론적 관점’은 문학 작품이 독자에게 미치는 효용을 중시하는 관점이다. ‘내 가슴도 울렁거려’, ‘나도 모르게 “네, 네, 네”라고 대답하고 싶단 말이야.’의 부분은 독자가 얻은 감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마지막 문장의 ‘아직 강대국에 싸여 있는 21세기 우리 시대 독자들에게도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에 큰 감동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에서 효용론적 관점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참고) 문학의 감상 관점(우월한 독해 p. 170)

내재적 접근 방법	구조론	작품을 독립된 세계로 보고 오직 작품의 내적 요소를 토대로 하여 작품을 이해하려는 관점으로, 인물, 표현, 작중 상황 등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을 감상한다. 절대주의적 관점이라고도 한다.
	표현론	작품을 작가의 체험, 사상, 감정 등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관점으로, 작가의 성장 환경, 학력, 교우 관계, 취미, 종교, 사상 등을 고려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외재적 접근 방법	반영론	문학 작품을 현실의 반영이라고 보는 관점으로, 작품의 내용을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고 감상한다.
	효용론	문학 작품이 독자에게 미치는 효용을 중시하는 관점이다. 독자가 얻는 교훈이나 감동이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서 감상한다.

[작품해설]

이광수, <무정(無情)>

- 성격: 계몽적, 민족주의적, 설득적
-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 배경: 시간적 배경 - 1910년대 개화기, 공간적 배경 - 경성, 평양, 삼랑진
- 특징
 - 형식: 신소설의 문어체를 극복, 사건을 역순행적으로 배열
 - 내용: 서구적 가치관(자유연애사상)을 지향,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함
- 구성
 - 발단: 이형식이 영어 개인 교수를 하던 김선형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낄 무렵, 옛 은사의 딸 박영채가 나타나 사랑을 고백한다.
 - 전개: 형식은 기생이 된 영채를 아내로 맞이하지 못하는 죄책감과 선형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심리적 갈등을 느낀다.
 - 위기: 영채는 배 학감에게 순결을 잃자 유서를 남기고 자취를 감추고, 형식은 그녀를 찾기 위해 평양까지 가지만 그녀를 찾지 못한다.
 - 절정: 병욱의 권고로 자살을 단념하고 유학길에 오른 영채와, 선형과 약혼하고 미국 유학길에 오른 형식이 같은 기차 안에서 만난다. 이들은 수재민 구호 활동을 계기로 민족을 위해 살 것을 결심한다.
 - 결말: 토론을 통해 민족의식을 자각하게 된 그들은 장차 조국에 이바지할 계획들을 토의하고 유학의 길을 떠난다.
- 주제: 민족의식과 자유연애 사상의 고취

★ 오답 해설:

- ① ‘반영론적 관점’은 문학 작품을 현실의 반영이라고 보는 관점으로, 작품의 내용을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고 감상한다. 주어인 <보기>에는 ‘현실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작품을 살피는’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다.
- ③ ‘표현론적 관점’은 작품을 작가의 체험, 사상, 감정 등을 표현한 것으로 보며, 작가의 성장 환경, 학력, 교우 관계, 취미, 종교, 사상 등을 고려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작가 이름은 첫 문장에 나와 있으나, 성장 환경, 학력 등 작가에 대한 정보는 드러나 있지 않으며 이를 통해 작품을 분석하는 내용 또한 <보기>에 있지 않다.
- ④ 작품을 독립된 세계로 보고, ‘인물, 표현, 작중 상황’ 등 오직 작품의 내적 요소를 토대로 하여 작품을 이해하려는 ‘구조론적 관점’은 ‘절대론적 관점’이라고도 하며, 누가 보아도 큰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객관론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보기>에는 인물, 표현 등의 내적 요소에 대한 분석이 드러나 있지 않으며, 이를 통해 작품을 감상하고 있지도 않다.